

## 제2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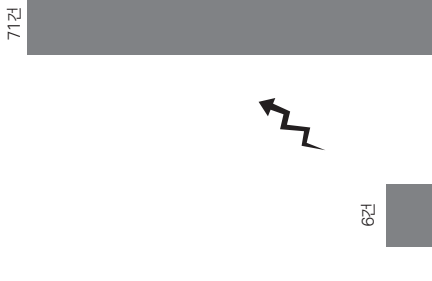
# 동아시아 지역무역협정(RTA) 체결의 발전과 특징

Development and Characteristics of the RTA in East Asia

유웅조 |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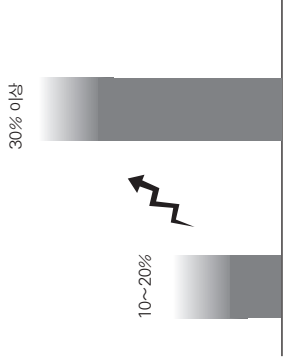
## 동아시아 지역무역협정 체결의 발전과 특징

1997~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



동아시아 지역 내: 19건  
동아시아 지역 외: 52건

경제적 지역주의  
(RTA 체결)



경제적 지역화  
(지역 내 무역 비중)

# 동아시아

지역의 지역무역협정(RTA)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동아시아 경제적 지역주의의 특징을 밝힌다.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적 지역주의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이며, 이 같은 현상은 2000년 이후 급증하는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RTA 체결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동아시아 지역 RTA 체결의 특징은 복수간 RTA에 비해 양자간 RTA가 많다는 점과 지역 내 RTA보다는 지역 외 RTA가 많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동아시아 RTA 중 양자간 RTA가 63건으로 전체 RTA 중 88.73%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아시아 국가가 포함된 RTA 중 지역 내 건수는 19건으로 전체 71건 중에 26.76%에 불과하다. 한편 이 같은 경제적 지역주의는 동아시아 경제적 지역화(regionalization)가 지역 내로 집중되는 현상과는 차이가 있다. 이런 현상을 통해 동아시아 지역의 RTA가 지역 내 무역규모를 제고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다른 한편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RTA 대상 지역은 체결건수를 기준으로 할 때 유럽, 서아시아, 오세아니아, 남미 지역 순으로 많다. 그러나 이 같은 체결건수가 각 지역에 대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무역비중과 비례하지는 않는다. 즉 지역별 RTA 체결건수와 무역비중과는 상관성이 없거나 낮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결국 이 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동아시아 경제적 지역주의는 지리적으로 지역 내보다는 지역 외로 향하고 있으나, 경제적 지역화는 지리적으로 지역 외보다는 지역 내로 집중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This paper aims to overview stats and to characterize economic regionalism in East Asia. It was since 1997 when the asian financial crisis occurred that economic regionalism, in particular here institution-

driven regionalism has been flowering in East Asia.

The characteristics of RTA in East Asia are as follows: the number of plural RTAs is larger than that of bilateral RTAs; 2) inter-regional RTAs prevail intra-regional RTAs. Nevertheless the economic regionalism in East Asia is distinctive from economic regionalization, which has been converged to intra-region of East Asia. This phenomenon reveals that the RTAs in East Asia promotes the size of intra-trade in East Asia. In addition, this paper shows that the primary targets of RTA in East Asia are Europe, Oceania, South America. However, the number of RTAs involved East Asian countries is not related to the weight of trade of East Asian countries toward those regions.

In this paper, it is found that some distinctions take place between economic regionalism and economic regionalization in East Asia.

**KEY WORDS** 지역주의 regionalism, 지역무역협정 RTA, 무역 trade, 동아시아 East Asia, 지역화 regionalization

## I 서론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동아시아의 세계경제적 위상은 급상승하고 있다. 이 맥락에서 미국 국제경제연구소 버거스텐(Fred Bergsten) 국제경제연구소(IIE: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소장은 동아시아가 미국 및 EU와 함께 세계 3대 경제지역권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Bergsten 2000). 또한 2011년 아시아 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의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에 들어서면 동아시아는 세계 GDP의 52%를 차지하는 핵심적인 지역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ADB 2011). 따라서 동아시아 경제협력에 대한 분석과 이해는 세계경제를 이해하고 전망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이 글은 동아시아 경제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으로 동아시아의 제도화된 경제협력인 지역 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sup>1</sup>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2014년 10월 말 현재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RTA 체결건수

1 자유무역협정은 양자 혹은 양자 이상의 국가(지역협의체 포함)간 상호무역협정을 의미하는데,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의 다자무역 질서에서 최혜국대우 원칙에 배치되지만 예외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제24조에 의거한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및 관세동맹(customs unions)과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제5조에 의거한 경제통합협정(EIA: Economic Integration Agreement), 그리고 GATT의 1979년의 결정에 의거하여 개도국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보다 특혜적인 대우를 허용하는 허용조항(enabling clause) 등이 있다. WTO 웹사이트: [http://www.wto.org/english/tratop\\_e/region\\_e/scope\\_rta\\_e.htm](http://www.wto.org/english/tratop_e/region_e/scope_rta_e.htm)(검색일: 2014년 9월29일)

는 71건에 달하며, 이 중 66건이 2000년대 들어서 체결된 것들이다. 이로 인해 동아시아 지역의 RTA 체결 추세는 제3의 지역주의(regionalism)<sup>2</sup> 물결의 핵심적인 현상으로 지칭되기도 한다.

동아시아에서의 RTA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1997년에 발생한 아시아 금융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그 이전까지는 동아시아 국가들은 제도(institution-driven)보다는 시장주도형(market-driven) 경제협력을 통한 경제발전 전략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유럽이나 북미 지역과 구분되는 특징을 보였다(Urata 2006).<sup>3</sup> 이는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경제발전 수준 차이, 정치적 동력 미흡, 역사적 경험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물론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전에 제도적 차원의 경제협력에 대한 논의가 전무했던 것은 아니다. 단지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지역 차원의 금융위

- 2 지역주의 개념은 다기하게 논의되는데, 여기에서는 다자주의(multilateralism)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GATT의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는 우루과이 라운드(Uruguay Round)나 도하라운드(Doha Round)와 달리 GATT의 원칙하에 2개 이상의 국가가 양자 혹은 다자간 체결하는 호혜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Bhagwati 1992, 535). 즉 경제적 측면의 지역주의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를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 글에서는 '경제적 지역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러한 개념에 의거하여 제1의 지역주의 물결은 1950년대 유럽에서, 제2의 지역주의 물결은 1980년대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과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확대현상을 의미한다. 한편 지역주의 개념에 대해서는 학문에 따라 다양한 이해방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글에서 언급하는 지역주의의 범주는 그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Mansfield and Milner 1999, 590-591).
- 3 여기서 'regionalization'(지역화)는 'regionalism'(지역주의)과 구분되는 현상으로 이해되기도 하는데, 지역화는 시장이 주도하는 상방식(bottom-up)으로 일정 국가 또는 지역이 포함되지 않은 다른 국가 또는 지역과의 차별성이 형성되는 것을 의미하고, 지역주의는 정부가 주도하는 하방식(top-down)으로 일정 국가 혹은 지역이 다른 국가 또는 지역과의 차별성이 형성됨을 의미한다.

기와 같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 지역 경제질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공동노력의 필요성이 전면화되면서 제도적 차원의 경제협력에 대한 논의가 공식화되고 실천되기 시작했고, 같은 맥락에서 RTA 체결이 활성화되었던 것이다.

이 맥락에서 이 글은 동아시아 RTA의 성격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 연구는 기술적 수준의 연구에 불과하다. RTA 성격에 대한 기존 연구는 RTA가 무역창출효과(trade creation)를 발휘하는지 아니면 무역전환효과(trade diversion)를 발휘하는지에 대한 분석(Viner 1950; Lipsey 1970; Krugman 1991; Bhagwati 1995; Panagariya 1996; Frankel 1997 등), RTA 활성화 요인이 다자주의의 비효율성 때문인지 아니면 미국과 같은 주도국의 정책 전환 또는 도미노 현상 때문인지에 대한 분석(Krugman 1993; Bhagwati 1993; Baldwin 1995; Bergsten 1996; Panagariya 1996; Baldwin 1997 등), 그리고 이와 관련한 미시적 분석(Ghosh 2004)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진행되어 왔다. 이 밖에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RTA 체결로 인해 발생하는 소위 ‘스파게티볼 효과’(Spaghetti bowl effect)에 대한 문제점을 부각하는 연구(Bhagwati 2008)도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동아시아 지역의 RTA가 “진행형”이고 이에 따른 통계자료가 미흡해 이러한 제반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용이하지 않다는 인식에 의거하여, 동아시아 지역의 RTA 자료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에 국한한다.

이 글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 절에서는 RTA 동아시아 경제협력체계의 발전과정을 개관한다. 동아시아 경제협력체계는 무역과 투자 및 금융차원의 협력뿐만 아니라 글로벌, 지

역, 양자간 차원의 다층적인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는 바, 이에 대해서 개관한다. III절에서는 동아시아 지역의 RTA 체결현황을 정리한다. 특히 여기에서는 다른 지역의 RTA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논의한다. IV절에서는 동아시아 무역활동과 RTA 체결 간의 상관성에 대해서 분석한다. 그리고 V절에서 이 글을 요약하고 마무리한다.

## II 동아시아 지역의 제도적 경제협력 발전과정

### 1. 아시아 금융위기 이전: 냉전과 탈냉전기

냉전시기 동아시아에서의 제도적 차원의 경제협력은 동남아시아 정부 간 협력체인 ‘동남아시아 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sup>4</sup>과 일본 및 호주의 민간이 주도한 ‘태평양 경제 협의회’(PBEC: Pacific Basin Economic Council)와 ‘태평양 무역과 발전’(PAFTAD: Pacific Trade and Development) 및 ‘태평양 경제협력 회의’(PECC: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Conference) 등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발전했다고 볼 수 있다(Dent 2013). 그러나 전자는 동남아 지역에 국한했을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대한 공산진영의 진출을 저지하기 위한 미국의 지정학적인 전략을 반영한 측면이 강했기 때문에 경제협력을 주요한 의제로 다루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를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

4 이 당시 회원국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등 다섯 나라였다.



(Sum 1996). 이에 반해 후자는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우리나라,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캐나다 등을 포괄하고 있어 동아시아 전체를 포함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었으나, 이 또한 당시 냉전질서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으며, 민간차원의 경제협력이었고, 동아시아와 태평양을 포괄한다는 측면에서 동아시아 지역 차원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또한 후자는 1989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을 결성하는 단초가 되기도 했다.

탈냉전 시기인 1991년 마하티어(Mahathier Mohammad) 말레이시아 전 총리가 동아시아 국가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협력체인 ‘동아시아 경제그룹’(EAEG: East Asia Economic Group)을 제안했다(Ganesan 2011). 동 제안은 아세안 회원국과 한·중·일을 포괄하는 구상이었는데, 당시 미국과 호주 등이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다. 미국과 호주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sup>5</sup>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공동체 구상을 선호했는데, 특히 미국은 자국의 영향력 약화를 우려하여 우리나라와 일본이 미국을 포함하지 않는 지역협력체에 참여하는 것을 꺼려했다(Stubbs 2002). 이에 따라 EAEG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sup>6</sup>

5 APEC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을 회원국으로 하여 1989년에 설립되었는데, EU와 달리 개방적이었다. 우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아닌 국가들의 참여도 허락했고, WTO 규범에 의거한 지역 내 국가들의 자유무역협정을 장려했다(Pomfret 2009).

6 당시 이와 관련하여 인도네시아는 EAEG를 APEC의 산하협력체로 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는데, 이는 아시아 국가들만으로 대상으로 하고자 했던 말레이시아의 구상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1990년대에는 ASEAN과 APEC은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각각의 경제협력체로 발전하게 된다. 1992년 ASEAN은 ‘동남아시아 자유무역지역’(AFTA: ASEAN Free Trade Area) 협정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서명국은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등이었다. 이후 1995년 베트남, 1997년 라오스와 미얀마, 그리고 1999년에 캄보디아 등이 참여하였다. 한편 1994년 APEC 회원국들은 선진국과 발전도상국으로 나뉘어, 전자 간의 자유무역과 투자지대를 2010년까지 구축하고 이를 확대하여 2020년까지 후자를 포함하기로 하였다. 같은 해 태평양 동부 지역인 북미 지역에서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이 체결하는 한편, 남미 지역의 멕시코와 칠레, 그리고 콜롬비아와 멕시코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등 동아시아 지역의 국가들과 다른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결국 1990년대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실질적인 경제협력체가 구축되지 못했다.

## 2.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1997년에서 1998년에 밀어닥친 아시아 금융위기는 동아시아의 제도적인 경제협력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아세안+3’(APT: ASEAN Plus Three)와 ‘치앙마이 구상’(CMI: Chiang Mai Initiative) 및 ‘아시아 채권시장 방안’(ABMI: Asia Bond Market Initiative) 등의 동아시아 경제협력체 탄생과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양자간 RTA 활성화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구체화되었다.

우선 1997년 7월 태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가 단기간에 동아시아 지역차원으로 확산되면서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상호의존성을 확인하게 되고, 이 같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체의 필요성이 대두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아시아-유럽 회의’(ASEM: Asia-Europe Meeting)를 위해 준비회의 성격으로 1998년에 개최된 ‘아세안+3(APT: ASEAN Plus Three)’ 회의가 동아시아 지역의 금융협력과 거버넌스 구축 결성을 개시하는 회의로 전환되었다. 동 회의를 통해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실질화하면서 APT는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주요한 정책협력을 위한 협의체로 성장하게 된다. 이 맥락에서 ‘치앙마이 구상’(CMI: Chiang Mai Initiative)과 ‘아시아 채권시장 방안’(ABMI: Asia Bond Market Initiative)이 동아시아 경제협력체계의 중요한 축으로 탄생하게 된다(Dent 2013). 우선 2000년에 설립된 CMI는 거의 모든 APT 회원국들 간의 양자간 통화 스왑협정(BCSA: Bilateral Currency Swap Agreement) 네트워크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 2009년에는 총 16개국에 참여하게 된다. 그리고 2003년에 실질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 ABMI는 ‘아시아 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은 물론 ‘동아시아 중앙은행 협력회의’(EMEAP: Executive Meeting of East Asian Central Banks) 및 ‘국제결제은행’(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과 협력하여 동아시아 지역의 채권문제를 해결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면서 또다른 금융협력체계로 자리 잡게 된다.

이와 함께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 간 또는 지역 외 국가들과의 RTA가 활성화된다. 그 이전 시기

까지 WTO에 보고된 RTA는 ‘개발도상국 간 무역협정에 관한 의정서’(PTN: Protocol relating to Trade Negotiations among Developing countries)<sup>7</sup>,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Asia Pacific Trade Agreement, 또는 Bangkok Agreement)<sup>8</sup>, ‘개도국 간 무역특혜제도’(GSTP: 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 among Developing Countries)<sup>9</sup>, ‘라오스와 태국 간 특혜협정’(Laos-Thailand Partial Scope Agreement), 아세안자유무역협정(AFTA: ASEAN Free Trade Area)등에 불과했다. 이후 동아시아 지역의 RTA가 활성화되었고, 그 수는 2014년 10월까지 총 50여 건에 이른다.

이처럼 동아시아 지역의 제도적인 경제협력은 동남아시아 지역 간의 협력에서 출발하여,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한국과 중국 및 일본이 참여(APT)하게 되고, 이를 위한 금융 및 외환과 무역 부문의 협력체계의 발전으로 이어져왔다.

- 7 동 협정은 1971년 12월에 체결되고 1973년 2월부터 발효된 개도국 간 특혜협정(PSTA: Partial Scope Agreement)으로 동아시아(한국, 필리핀), 서아시아(방글라데시), 중동(이스라엘), 아프리카(이집트, 튀니지), 남미(브라질, 파라과이, 페루, 우르과이), 북미(멕시코), 유럽(터키,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현재는 세르비아)) 등이 참여하고 있다. WTO 웹사이트 <http://rtais.wto.org/UI/PublicShowRTAIDCard.aspx?rtaid=147>(검색일:2014년 10월 31일).
- 8 1976년에 발효된 동 협정에는 한국을 비롯하여 인도, 방글라데시, 라오스, 스리랑카 등이 참여했었는데, 2006년 개정되면서 중국이 추가되었다. WTO 웹사이트 <http://rtais.wto.org/UI/PublicPreDefRepByEIFShowCard.aspx?rtaid=140>(검색일: 2014년 10월 31일).
- 9 동 협정은 유엔 무역개발협의회(UNCTAD)의 지원하에 개도국 상호간에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체결된 협정으로 남북한을 포함하여 약 40여 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WTO 웹사이트 <http://rtais.wto.org/UI/PublicShowRTAIDCard.aspx?rtaid=146>(검색일: 2014년 10월 31일).

### III 동아시아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과 국제비교

#### 1. 동아시아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동아시아 RTA는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에 급증하는데, 특히 2000년대 들어 급증한다. 이에 따라 2014년 10월 31일 현재 동아시아 국가가 체결한 RTA는 총 71건에 달하는데, 이는 WTO에 보고된 RTA(총 280건)<sup>10</sup> 중 약 25%에 해당한다.

이 같은 동아시아 RTA는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우선 동아시아 RTA 중 상대국(또는 RTA 체결그룹)의 지역을 내외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지역 내 국가(또는 RTA 체결그룹)들 간에 체결된 RTA는 총 19건이며, 이는 지역 외 국가(또는 RTA 체결그룹)와 체결된 RTA 52건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체결주체가 양자 또는 복수인지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양자간 RTA(63건)가 복수간 RTA(8건)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동아시아 지역 국가(또는 RTA 체결그룹)가 체결한 대부분의 유형은 FTA와 EIA를 적용한 것이며, PTN(1973), APTA(1976) (중국 가입 포함, 2002), GSTP(1989), ‘라오스-태국 RTA’(1991)는 특혜협정(PSA)을, ‘한국-터키(2013)’, ‘말레이시아-칠레(2012)’, ‘일본-ASEAN(2008)’ 등 RTA는 FTA 만을, AFTA(1992), ‘ASEAN-인도(2010)’ 등의 RTA는 FTA 만을 체결하고 상품

10 동 숫자는 FTA와 EIA를 분리해서 체결한 경우를 구분하여 계산한 것이다. 이를 통합할 경우 265건이다. 한편 EU와 우크라이나의 RTA는 아직 발효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효된 건수에서는 제외된다.

표 1. 동아시아 RTA 체결현황(1960~2014년 10월)

| 연도   | 수  | 동아시아 지역 내  | 동아시아 지역 외  |
|------|----|--|--|
| 1971 | 1  | -  | 개도국간 무역협정에 관한 의정서(PTN)(1973)*  |
| 1975 | 1  | -  | 아태무역협정(APTA)(1976)*  |
| 1988 | 1  | -  | 개도국 특혜무역제도(GSTP)(1989)*  |
| 1991 | 1  | 라오스-태국(1991)*  | -  |
| 1992 | 1  | 아세안자유무역협정(AFTA)(1992)**  | -  |
| 2000 | 1  | -  | 싱가포르-뉴질랜드(2001)  |
| 2001 | 1  | -  | 아태무역협정(중국 가입)(APTA)(2002)*   |
| 2002 | 2  | 일본-싱가포르(2002)  | 싱가포르-EFTA(2003)  |
| 2003 | 5  | 중국-홍콩(2003), 중국-마카오(2003)  | 싱가포르-호주(2003), 한국-칠레(2003)<br>대만-파나마(2004), 싱가포르-미국(2004)  |
| 2004 | 4  | ASEAN-중국(2005)**   | 일본-멕시코(2005), 태국-호주(2005)<br>싱가포르-요르단(2005)  |
| 2005 | 9  | 일본-말레이시아(2006), 한국-싱가포르(2006)  | 환태평양전략경제동반자협정(TPP)(2006)<br>싱가포르-인도(2005), 대만-과테말라(2006)<br>태국-뉴질랜드(2005), 한국-EFTA(2006)<br>싱가포르-인도(2005), 중국-칠레(2006)**   |
| 2006 | 5  | 한국-ASEAN(2010)**, 일본-필리핀(2008)   | 대만-과테말라(2008), 중국-파키스탄(2007)**<br>싱가포르-파나마(2006),  |
| 2007 | 8  | 일본-인도네시아(2008), 일본-부르나이(2008), 일본-태국(2007)<br>중국-ASEAN(2007)****<br>일본-베트남(2009),<br>중국-싱가포르(2009) | 한국-미국(2012), 일본-칠레(2007), 말레이시아-파키스탄(2008)****<br>대만-온두라스-엘살바도르(2008)  |
| 2008 | 8  | 일본-ASEAN(2008)**,<br>한국-ASEAN(EIA, 2009)   | 싱가포르-페루(2009), 중국-뉴질랜드(2008),<br>중국-칠레(EIA, 2010),   |
| 2009 | 7  | -  | 한국-인도(2010), 중국-페루(2009), 일본-스위스(2009), 중국-파키스탄(2009)<br>말레이시아-뉴질랜드(2010)<br>ASEAN-호주(2010), ASEAN-인도(2010)***<br>말레이시아-칠레(2012), 싱가포르-코스타리카(2013), 한국-EU(2011), 홍콩-뉴질랜드(2011), 중국-코스타리카(2011) |
| 2010 | 5  | -  | 일본-페루(2012), 일본-인도(2011),<br>홍콩-EFTA(2012), 말레이시아-인도(2011), 한국-페루(2011)  |
| 2011 | 5  | -  | 한국-터키(2013)**, 홍콩-칠레(2014), 말레이시아-호주(2013)   |
| 2012 | 3  | -  | 중국-아이슬랜드(2014), 대만-뉴질랜드(2013), 중국-스위스(2014)  |
| 2013 | 4  | 싱가포르-대만(2014)  |  |
| 계    | 67 | 19<br>(양자: 18, 복수: 1)  | 52<br>(양자: 45, 복수: 7)  |

출처: WTO RTA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참고 1: 다음과 같은 별표가 없는 경우에는 FTA 및 EIA를 동시에 체결한 경우이고, EIA 만 체결한 경우에는 EIA 표기함.

\*PSA 협정, \*\*FTA 만 체결, \*\*\*FTA 만 체결하고 상품에 대해서는 허용조항(enabling clause)을 적용, \*\*\*\*FTA 및 EIA 체결하고 상품에 대해서는 허용조항(enabling clause) 적용.

참고 2: 이 표의 연도는 서명일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발효일의 연도는 발효일 기준임.

표 2. 동아시아 국가 RTA 체결현황(2014년 10월 31일 현재)

| 구분    | 전체  | 상품부문 체결 | 상품부문(가입) | 서비스부문 체결 | 서비스부문(가입) |
|-------|-----|---------|----------|----------|-----------|
| 싱가포르  | 21  | 21      | 0        | 17       | 0         |
| 말레이시아 | 13  | 13      | 0        | 8        | 0         |
| 일본    | 13  | 13      | 0        | 12       | 0         |
| 한국    | 12  | 12      | 1        | 8        | 0         |
| 중국    | 12  | 12      | 1        | 11       | 0         |
| 태국    | 11  | 11      | 0        | 6        | 0         |
| 필리핀   | 9   | 9       | 0        | 4        | 0         |
| 라오스   | 8   | 8       | 1        | 3        | 0         |
| 베트남   | 8   | 8       | 0        | 4        | 0         |
| 브루나이  | 8   | 8       | 0        | 5        | 0         |
| 인도네시아 | 8   | 8       | 0        | 4        | 0         |
| 미얀마   | 7   | 7       | 0        | 3        | 0         |
| 대만    | 6   | 6       | 0        | 6        | 0         |
| 캄보디아  | 6   | 6       | 0        | 3        | 0         |
| 홍콩    | 4   | 4       | 0        | 4        | 0         |
| 마카오   | 1   | 1       | 0        | 1        | 0         |
| 북한    | 1   | 1       | 0        | 0        | 0         |
| 몽골    | 0   | 0       | 0        | 0        | 0         |
| 계     | 148 | 148     | 3        | 99       | 0         |

출처: WTO RTA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단위: 건수

참고 1: 가입은 이미 체결된 RTA에 새로운 주체가 참여하는 경우를 의미함.

참고 2: 발효 건수를 기준으로 한 것임.

에 허용조항(enabling clause)을 적용한 경우이다. 그리고 ‘중국-ASEAN(2007)’과 ‘말레이시아-파키스탄(2008)’의 RTA는 FTA와 EIA를 체결하고 상품에 대해서는 허용조항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이다.<sup>11</sup>

한편 동아시아 개별국가 차원에서 RTA 체결현황을 살펴보면 총 148건이며, 이 중에서 싱가포르가 21건으로 가장 많은 RTA를 체결했으며, 말레이시아(13건), 일본(13건), 한국(12건), 중국(12

건), 태국(11건) 등의 순으로 RTA를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RTA 분야를 상품 부문과 서비스 부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대부분의 경우 상품과 서비스를 RTA 협정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데 서비스 부문의 경우에는 일본이나 중국 등이 말레이시아나 한국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2. 동아시아 지역무역협정의 국제비교

### 1) 동아시아 지역무역협정 체결추이

동아시아 RTA 현황을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동아시아 지역 국가가 포함된 RTA 수가 71건으로 유럽 지역 국가가 포함된 RTA 건수(105건) 다음으로 많으며, 가장 많은 증가세를 보였던 시기는 다른 지역처럼 2000년대 들어서이다. 이 같은 추세는 2010년대 들어서도 유사한데, 유럽을 제외하고는 RTA 체결건수가 다소 정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2000년 기준으로 하여 지역별 RTA 건수에 대한 t-test를 실시해 보면, 동아시아의 경우에는 유의도 99% 수준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그 비중이 있어서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00년 기준으로 동아시아 지역 국가(기 RTA 체결체 포함)가 포함된 RTA 체결건수의 비중이 증가한 것이다.<sup>12</sup> 이에 반해 다른 지역

11 괄호 안의 연도는 발효일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 FTA와 EIA를 분리하여 체결한 경우 최종적인 RTA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12 단 CIS의 경우에는 1990년대 초에 독립된 국가들로 그 이전 시기에 비해 그 비중이 커졌다.



표 3. 지역별 RTA 체결 추이(2014년 10월 31일 현재)

| 구분    | 1950<br>-1960 | 1970 | 1980 | 1990 | 2000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계   |
|-------|---------------|------|------|------|------|------|------|------|------|------|-----|
| 동아시아  | 0             | 2    | 1    | 2    | 49   | 5    | 5    | 3    | 4    | 0    | 71  |
| 서아시아  | 0             | 2    | 1    | 3    | 14   | 0    | 2    | 0    | 0    | 0    | 22  |
| 오세아니아 | 0             | 2    | 3    | 1    | 12   | 1    | 0    | 1    | 1    | 0    | 21  |
| 유럽    | 3             | 8    | 2    | 23   | 53   | 3    | 5    | 3    | 2    | 3    | 105 |
| CIS   | 0             | 0    | 0    | 33   | 8    | 1    | 2    | 0    | 0    | 3    | 47  |
| 북미    | 0             | 2    | 3    | 7    | 21   | 1    | 2    | 0    | 0    | 0    | 36  |
| 캐리비안  | 0             | 2    | 2    | 1    | 3    | 0    | 1    | 0    | 0    | 0    | 9   |
| 중미    | 1             | 1    | 1    | 6    | 16   | 3    | 3    | 0    | 0    | 0    | 31  |
| 남미    | 0             | 3    | 3    | 10   | 28   | 2    | 6    | 3    | 0    | 0    | 55  |
| 중동    | 0             | 2    | 2    | 8    | 13   | 0    | 1    | 0    | 0    | 0    | 26  |
| 아프리카  | 0             | 1    | 1    | 10   | 16   | 0    | 0    | 0    | 0    | 0    | 28  |

출처: WTO RTA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표 4. RTA 체결 지역별 비율 차이 t-test 결과(2000년 기준)

| 지역    | 전체     | 비기준집단(0) |        | 기준집단(1) |     | 유의도    |        |                   |
|-------|--------|----------|--------|---------|-----|--------|--------|-------------------|
|       | 평균     | N        | 평균     | 표준편차    | N   | 평균     | 표준편차   | Pr<br>( T  >  t ) |
| 동아시아  | 0.2536 |          | 0.9481 | 0.2150  |     | 0.3750 | 0.4855 | 0                 |
| 서아시아  | 0.0786 |          | 0.0901 | 0.2883  |     | 0.0577 | 0.2343 | 0.32              |
| 오세아니아 | 0.0750 |          | 0.0577 | 0.2343  |     | 0.0852 | 0.2800 | 0.3998            |
| 유럽    | 0.3750 |          | 0.3462 | 0.4780  |     | 0.3920 | 0.4896 | 0.4452            |
| CIS   | 0.1679 |          | 0.3173 | 0.4677  |     | 0.0796 | 0.2714 | 0                 |
| 북미    | 0.1286 | 104      | 0.1154 | 0.3210  | 176 | 0.1364 | 0.3444 | 0.6138            |
| 캐리비안  | 0.0321 |          | 0.0481 | 0.2150  |     | 0.0227 | 0.1495 | 0.2468            |
| 중미    | 0.1107 |          | 0.0865 | 0.2825  |     | 0.1250 | 0.3317 | 0.3234            |
| 남미    | 0.1964 |          | 0.1538 | 0.3625  |     | 0.2216 | 0.4165 | 0.1692            |
| 중동    | 0.0929 |          | 0.1154 | 0.3210  |     | 0.0795 | 0.2714 | 0.3198            |
| 아프리카  | 0.1000 |          | 0.1154 | 0.3210  |     | 0.0909 | 0.2883 | 0.5112            |

출처: 저자 작성.

의 국가(기 RTA 체결체 포함)를 포함한 RTA 체결비중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았는데, 단 CIS의 경우에는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2) 동아시아 양자간 RTA 비중

동아시아 RTA 중 양자간 RTA가 63건으로 전체 RTA 중 88.7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편이다. 가령 CIS 지역의 경우는 양자간 RTA 건수가 41건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으나, 그 비중은 87.23%로 동아시아의 그것에 비해 낮다. 이밖에 중동(80.77%), 북미(80.56%), 유럽(79.05%)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

표 5. 양자간 RTA 체결현황 지역 간 비교(2014년 10월 31일 현재)

| 구분    | 양자간 RTA | 복수간 RTA | 양자간 RTA 비율 | 계   |
|-------|---------|---------|------------|-----|
| 동아시아  | 63      | 8       | 88.73      | 71  |
| 서아시아  | 15      | 7       | 68.18      | 22  |
| 오세아니아 | 14      | 7       | 66.67      | 21  |
| 유럽    | 83      | 22      | 79.05      | 105 |
| CIS   | 41      | 6       | 87.23      | 47  |
| 북미    | 29      | 7       | 80.56      | 36  |
| 캐리비안  | 1       | 8       | 11.11      | 9   |
| 중미    | 22      | 9       | 70.97      | 31  |
| 남미    | 40      | 15      | 72.73      | 55  |
| 중동    | 21      | 5       | 80.77      | 26  |
| 아프리카  | 16      | 12      | 57.14      | 28  |
| 전체    | 219     | 61      | 78.21      | 280 |

출처: WTO RTA 자료. <http://tais.wto.org/UI/publicPreDefRepByCountry.aspx>(검색일: 2014년 10월 31일).  
단위: 건수, %

참고: RTA 체결 건수는 각 지역 국가(또는 기 RTA 체결체)가 포함된 경우이므로 중복된 것임.

표 6. 지역별 RTA 유형 차이 t-test 결과(양자 RTA 기준)

| 구분    | 전체     |    | 비기준집단(0) |        | 기준집단(1) |        | 유의도<br>Pr<br>( T  >  t ) |        |
|-------|--------|----|----------|--------|---------|--------|--------------------------|--------|
|       | 평균     | N  | 평균       | 표준편차   | N       | 평균     |                          | 표준편차   |
| 동아시아  | 0.2536 |    | 0.1311   | 0.3404 |         | 0.2876 | 0.4537                   | 0.0129 |
| 서아시아  | 0.0785 |    | 0.1148   | 0.3214 |         | 0.0685 | 0.2532                   | 0.2365 |
| 오세아니아 | 0.0750 |    | 0.1.48   | 0.3214 |         | 0.0639 | 0.2452                   | 0.1838 |
| 유럽    | 0.3750 |    | 0.3607   | 0.4842 |         | 0.3790 | 0.4862                   | 0.7945 |
| CIS   | 0.1679 |    | 0.0984   | 0.3003 |         | 0.1872 | 0.3910                   | 0.1013 |
| 북미    | 0.1286 | 61 | 0.1147   | 0.3214 | 219     | 0.1324 | 0.3397                   | 0.7166 |
| 캐리비안  | 0.0321 |    | 0.1311   | 0.3404 |         | 0.0046 | 0.0676                   | 0.0000 |
| 중미    | 0.1107 |    | 0.1475   | 0.3576 |         | 0.1005 | 0.3013                   | 0.3017 |
| 남미    | 0.1964 |    | 0.2459   | 0.4342 |         | 0.1826 | 0.3873                   | 0.2731 |
| 중동    | 0.0928 |    | 0.0820   | 0.2766 |         | 0.0959 | 0.2951                   | 0.7415 |
| 아프리카  | 0.10   |    | 0.1967   | 0.4008 |         | 0.0731 | 0.2608                   | 0.0043 |

출처: 저자 작성.

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RTA 중 양자간 RTA가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t-test를 실시한 결과 동아시아와 캐리비안 및 아프리카 지역의 국가(또는 기 RTA 체결체)의 양자 RTA 비중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동아시아 지역과 아프리카 지역의 양자간 RTA 비중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캐리비안 지역의 경우에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나머지 지역의 경우에는 양자간 RTA 비중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RTA 상대국이 지역 내 또는 지역 외인지에 따라 지역별 차이를 살펴보면, 동아시아 국가(또는 기 RTA 체결체)가 포함된 RTA 중

표 7. 지역별 RTA 체결 대상국의 지역 내외 차이

| 구분    | 지역 외 |       | 지역 내 |       |
|-------|------|-------|------|-------|
|       | 건수   | 비율(%) | 건수   | 비율(%) |
| 동아시아  | 52   | 73.24 | 19   | 26.76 |
| 서아시아  | 15   | 68.18 | 7    | 31.82 |
| 오세아니아 | 16   | 76.19 | 5    | 23.81 |
| 아프리카  | 19   | 67.86 | 9    | 32.14 |
| 중동    | 24   | 92.31 | 2    | 7.69  |
| 유럽    | 39   | 37.14 | 66   | 62.86 |
| CIS   | 10   | 21.28 | 37   | 78.72 |
| 북미    | 35   | 97.22 | 1    | 2.78  |
| 캐리비안  | 9    | 100   | 0    | 0     |
| 중미    | 25   | 80.65 | 6    | 19.35 |
| 남미    | 51   | 92.73 | 4    | 7.27  |
| 전체    | 129  | 46.07 | 151  | 53.93 |

출처: WTO RTA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지역 내 건수는 19건으로 전체 71건 중에 26.76%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비율은 CIS(78.72%)와 유럽(62.86%)은 물론 아프리카(32.14%)와 서아시아(31.82%) 지역의 그것에 비해 낮은 편이다.

한편 이 같은 차이에 대한 t-test를 실시한 결과 서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통계적 의미를 볼 때 서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지역 내외 RTA 체결건수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8. 지역별 RTA 체결 대상국의 지역 내의 t-test 결과(지역 내 체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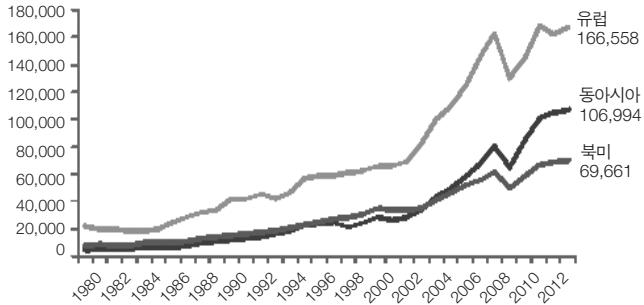
| 구분    | 전체     |     | 비기준집단(0) |         | 기준집단(1) |        | 유의도<br>Pr<br>( T  >  t ) |        |
|-------|--------|-----|----------|---------|---------|--------|--------------------------|--------|
|       | 평균     | N   | 평균       | 표준편차    | N       | 평균     |                          | 표준편차   |
| 동아시아  | 0.2536 |     | 0.3444   | 0.47674 |         | 0.1473 | 0.3558                   | 0.0001 |
| 서아시아  | 0.7857 |     | 0.0993   | 0.3001  |         | 0.0543 | 0.2274                   | 0.1635 |
| 오세아니아 | 0.0750 |     | 0.1060   | 0.3088  |         | 0.3876 | 0.1938                   | 0.0334 |
| 유럽    | 0.3750 |     | 0.4371   | 0.4977  |         | 0.3023 | 0.4059                   | 0.0202 |
| CIS   | 0.1679 |     | 0.6662   | 0.2495  |         | 0.2868 | 0.4540                   | 0.0000 |
| 북미    | 0.1286 | 151 | 0.2318   | 0.4234  | 129     | 0.0078 | 0.0880                   | 0.0000 |
| 캐리비안  | 0.0321 |     | 0.0596   | 0.2375  |         | 0.0000 | 0.0000                   | 0.0047 |
| 중미    | 0.1107 |     | 0.1656   | 0.3729  |         | 0.0465 | 0.2114                   | 0.0015 |
| 남미    | 0.1964 |     | 0.3377   | 0.4745  |         | 0.0310 | 0.1740                   | 0.0000 |
| 중동    | 0.0929 |     | 0.1589   | 0.3668  |         | 0.0155 | 0.1240                   | 0.0000 |
| 아프리카  | 0.1000 |     | 0.1258   | 0.3328  |         | 0.0698 | 0.2557                   | 0.1199 |

출처: 저자 작성.

## IV 동아시아 자유무역협정과 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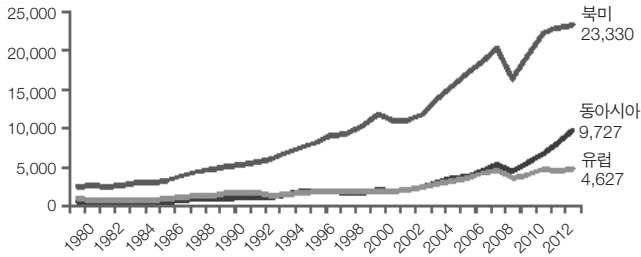
### 1. 무역규모

동아시아 지역의 무역규모는 북미 지역에 비해 높으나, 유럽(CIS 제외) 지역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다. UNCTAD 자료에 따르면 2013년도 동아시아의 무역규모는 약 1,070억 달러로, 북미 지역의 약 697억 달러에 비해서는 높으나, 유럽의 1,666억 달러에 비해서는 적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무역규모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북미 지역에 비해 적었다가 200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추월했다는 점은 동아시아 지역의 무역규모가 최근 증가세에 들어섰음을



출처: UNCTAD의 경제지표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단위: 미 백만 달러, 명목가치  
 참조: 지역별 구분은 WTO 기준에 의거한 것인데, 자료 미비로 누락된 국가들도 있음.

**그림 1. 주요 지역 무역규모 추이(1980~2013년)**



출처: UNCTAD 통계 DB.  
 단위: 미 백만 달러, 명목가치  
 참조: 지역별 구분은 WTO 기준에 의거한 것인데, 자료 미비로 누락된 국가들도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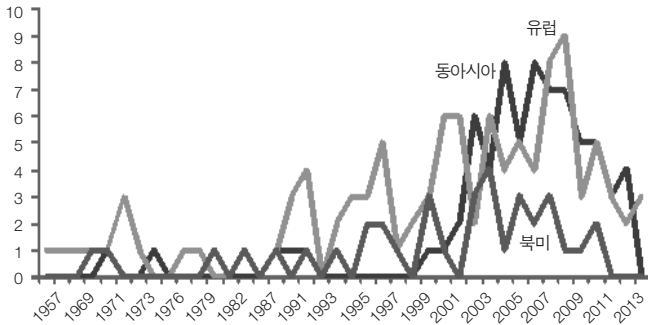
**그림 2. 지역별 무역규모 평균추이(1980~2013년)**

을 보여준다.

한편 2013년의 경우에 지역별 무역규모의 평균(국가 수 대비)은 북미가 약 232억 달러로 유럽의 평균인 약 46억 달러나 동아시아의 평균인 약 97억 달러에 비해 높았다. 그리고 동아시아의 경우 평균 무역규모가 1980년대까지만 해도 유럽에 비해 낮은 편이

었는데, 1990년대에 동일한 수준을 보이다가 2000년대 중반 이후  
 앞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무역규모 변화추세와 지역별 RTA 체결추이를 지역  
 간으로 비교해 보면 2000년대 이후 동아시아 RTA 체결건수가 이  
 전에 비해 급격히 상승하고 이에 따라 무역규모 면에서 북미 지역  
 을 앞서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시기 북미 지역 국가들이  
 참여하는 RTA 체결건수가 동아시아나 유럽에 비해 적다는 점은 동  
 아시아 지역의 RTA 체결과 동아시아 무역규모 증가 간에 상관성  
 이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유럽 지역의 FTA 체결  
 건수는 이전과 같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 시기 무역  
 규모도 이전처럼 동아시아나 북미 지역을 앞서고 있다는 점도 RTA  
 체결건수와 무역규모 간에 상관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  
 나 이러한 상관성은 좀 더 체계적인 검정과정을 필요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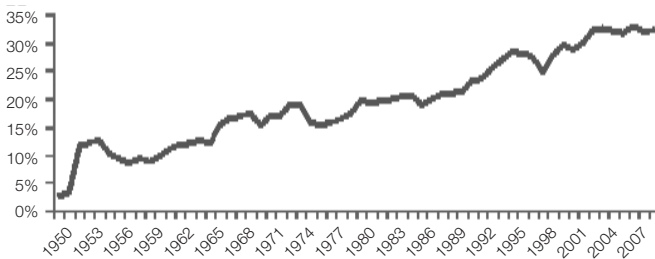
출처: WTO RTA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단위: 건수

그림 3. 주요 지역 무역규모 추이(1980~2013년)

## 2. 지역별 무역대상 지역 비중

동아시아 지역 내의 무역비중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1950년대 10% 내외였다가 1980년대 들어서면서 20%를 넘어섰으며, 2000년대에는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는 북미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유럽의 경우에는 195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 약 30% 내외를 유지하다가, 1990년대를 넘어서면서 50%를 넘어서고 있다. 또한 남미 지역의 경우 지역 내 무역비중이 6%에서 7% 내외였다가 1990년대 들어서 12%를 넘어서고 있으며, 아프리카 지역의 경우에도 지역 내 무역비중이 1980년대까지 2% 내외였다가 1990년대 들어서면서 5% 내외로 증가하였다. 이에 반해 북미 지역은 약 25%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은 동아시아 지역 내 무역비중 추이와 지역 내 RTA 체결 누적건수 추이를 비교해 보면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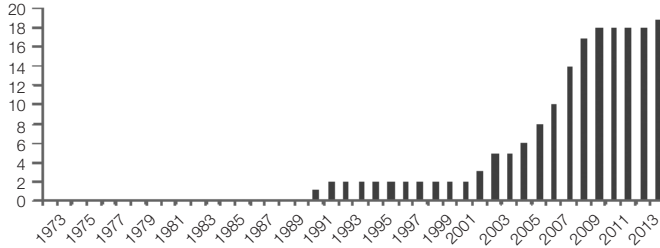


출처: Barbieri, Katherine and Omar Keshk. 2012. Correlates of War Project Trade Data Set Codebook, Version 3.0. <http://correlatesofwar.org/>.

참조: 관련 자료가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그림 4. 주요 지역 무역규모 추이(1980~2013년)





출처: WTO RTA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단위: 건수

그림 5. 동아시아 지역 내 RTA 누적건수 변화 추이(1973~2013년)

이며, 이에 대한 상관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 95% 수준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0.6662)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시아 지역별 무역비중을 살펴보면 1950년대에는 북미 지역에 대한 무역비중이 전체의 약 42%를 차지했으나, 그 비중이 점차 하락하여 1970년대에는 30% 내외,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30% 중반을 차지했다가 2000년대 들어서는 약 27%대로 하락했다. 이 같은 추세는 앞에서 살펴본 동아시아 지역 내 무역비중의 증가와 반비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동아시아의 무역대상이 북미 지역에서 동아시아 지역 내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 밖에 다른 지역에 대한 동아시아의 무역비중은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동아시아 지역별 RTA 누적건수는 지역 내가 2000년대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14년에는 19건에 달하여 가장 많은 RTA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남미가 2000년대 이후 급증하면서 2014년 13건으로 그 다음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서아시아, 오세아니아, 유럽, 중미, 남미, 북미, 중동, 캐리비안 지역 순으로 동아시아

표 9. 동아시아 대지역별 무역비중 추이(1950~2000년대)

| 구분    | 1950<br>년대 | 1960<br>년대 | 1970<br>년대 | 1980<br>년대 | 1990<br>년대 | 2000<br>년대 |
|-------|------------|------------|------------|------------|------------|------------|
| 동아시아  | 9.44       | 14.61      | 16.78      | 20.15      | 26.10      | 31.73      |
| 서아시아  | 7.64       | 3.86       | 1.77       | 1.66       | 1.59       | 2.33       |
| 유럽    | 19.72      | 14.92      | 14.13      | 13.85      | 22.60      | 19.97      |
| CIS   | -          | -          | -          | -          | 0.96       | 1.86       |
| 북미    | 42.37      | 37.68      | 32.57      | 34.70      | 33.43      | 26.79      |
| 중미    | 0.34       | 0.78       | 0.46       | 0.20       | 0.18       | 0.32       |
| 캐리비안  | 0.60       | 0.35       | 0.57       | 0.31       | 0.17       | 0.21       |
| 남미    | 2.61       | 3.43       | 3.14       | 2.26       | 2.13       | 2.48       |
| 오세아니아 | 4.61       | 6.73       | 6.20       | 4.98       | 4.22       | 4.05       |
| 아프리카  | 1.82       | 4.48       | 3.97       | 2.44       | 1.95       | 2.57       |
| 중동    | 2.89       | 6.11       | 13.13      | 12.43      | 6.08       | 7.80       |

출처: Barbieri, Katherine and Omar Keshk. 2012. Correlates of War Project Trade Data Set Codebook, Version 3.0. <http://correlatesofwar.org/>.

단위: %

참조: 관련 자료가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표 10. 동아시아 지역별 RTA 누적건수 추이(1973~2014년)

| 구분    | 1973 | 1980 | 1990 | 2000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 동아시아  | 0    | 0    | 0    | 2    | 18   | 18   | 18   | 18   | 19   |
| 서아시아  | 1    | 2    | 3    | 3    | 10   | 12   | 12   | 12   | 12   |
| 중동    | 1    | 1    | 2    | 2    | 3    | 3    | 3    | 3    | 3    |
| 오세아니아 | 0    | 0    | 0    | 0    | 8    | 9    | 9    | 11   | 11   |
| 유럽    | 1    | 1    | 2    | 2    | 5    | 6    | 7    | 8    | 10   |
| 북미    | 1    | 1    | 2    | 2    | 4    | 4    | 5    | 5    | 5    |
| 캐리비안  | 0    | 0    | 1    | 1    | 1    | 1    | 1    | 1    | 1    |
| 중미    | 0    | 0    | 1    | 1    | 5    | 6    | 6    | 7    | 7    |
| 남미    | 1    | 1    | 2    | 2    | 10   | 11   | 13   | 13   | 14   |
| 아프리카  | 1    | 1    | 2    | 2    | 2    | 2    | 2    | 2    | 2    |

출처: WTO RTA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단위: 건수

참조: RTA 체결은 발효일을 기준으로 한 것임.

RTA 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경향은 앞에서 기술한 동아시아의 대지역별 무역비중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지역별 국가 수에 비례한 측면도 있다. 따라서 지역별로 구분하여 RTA 체결건수와 무역비중간의 상관성을 갖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V 요약 및 결론

지난 2007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문제 해결의 주체가 미국과 유럽 등 소위 G7 중심에서 중국, 인도, 브라질은 물론 우리나라와 싱가포르 등 개발도상국들을 포함하는 G20 중심으로 전환되었다. 이 같은 변화는 21세기의 막이 열리면서 급상승한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적 위상에 대한 인식에서 이미 예상되고 있었다. 따라서 동아시아 지역 경제에 대한 분석은 21세기 세계경제를 이해하는데 있어 매우 핵심적인 분야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다수의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는데, 이 글은 동아시아 경제협력에 대한 연구이다. 특히 동아시아의 RTA 체결현황과 그 특징을 파악하고자 했다.

1950년대 이후 세계 경제현상에 있어서 부각된 현상 중의 하나는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주의의 등장이다. 비록 이 시기 지역주의는 1960년대를 거치면서 단절되었다가 1980년 중반 이후 유럽 지역에서 다시 활성화되었고, 1990년대 들어서는 북미 지역에 NAFTA가 체결되면서 미주 지역 전체로 확산되었다. 이 기간 동안 일본을 선두로 하여 우리나라, 중국, 싱가포르, 홍콩, 인도 등

아시아 지역 개발도상국들의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경제협력체 구축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기도 했다. 그러나 다른 지역과 달리 동아시아의 경제적 지역주의가 활성화되지는 않았다. 그러다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다자간 경제협력체와 함께 RTA 체결이 급증하면서 동아시아의 경제적 지역주의가 활성화되기 시작한다.

2014년 10월 말 현재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RTA 체결(발효 기준) 건수는 71건으로 유럽 지역 국가가 포함된 RTA 건수(105건) 다음으로 많은데, 이 같은 동아시아 지역의 RTA 체결의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양자간 RTA가 많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동아시아 RTA 중 양자간 RTA가 63건으로 전체 RTA 중 88.7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편이다. 또한 RTA 상대국이 지역 내 또는 지역 외인지에 따라 지역별 차이를 살펴보면, 동아시아 국가(또는 기 RTA 체결체)가 포함된 RTA 중 지역 내 건수는 19건으로 전체 71건 중에 26.76%를 차지하고 있다. 다시 말해 동아시아 지역 국가가 참여하고 있는 경제적 지역주의는 지리적으로 동아시아라고 하는 지역 내보다는 지역 외 국가들과 형성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 같은 경제적 지역주의는 동아시아 경제적 지역화(regionalization)와는 차이가 있다. 본론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동아시아 무역활동은 점차적으로 동아시아 지역 내로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이전까지는 동아시아 지역의 무역 대상 지역이 북미 지역이었으나 그 이후에는 동아시아 지역 내로 그 비중이 변화했다. 이 같은 경향은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 간의

RTA가 동아시아 지역의 무역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비록 이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인 분석이 더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동아시아 지역의 RTA가 지역 내 무역규모를 제고하고 있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RTA 대상 지역은 체결건수를 기준으로 할 때 유럽, 서아시아, 오세아니아, 남미 지역 순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체결건수에도 불구하고, 이 수치는 각 지역에 대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무역비중과 비례하지는 않다. 본문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동아시아 국가들의 무역대상국은 아직까지는 동아시아 다음으로 북미 지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같은 경향은 지난 1950년대 이후 동일한 추세를 보여 왔다. 단지 1990년대 들어 유럽과 중동 지역에 대한 무역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북미 지역에 대한 무역비중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무역활동이 장기적으로 다변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추론케 한다.

결국 이 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동아시아 경제적 지역주의는 지리적으로 지역 내보다는 지역 외로 향하고 있으나, 경제적 지역화는 지리적으로 지역 외보다는 지역 내로 집중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대로 이 연구는 기술적 분석에 국한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고 체계적인 연구를 위한 사전 검토에 불과하다. 따라서 차후 이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동아시아 지역의 RTA 체결, 더 나아가 이 지역의 경제적 지역주의의 성격을 밝히고자 한다.

## 참고문헌

- Asian Development Bank (ADB), 2011. ADB Annual Report 2011. <http://www.adb.org/documents/adb-annual-report-2011/>
- Baldwin, Richard E. 1995. "A Domino Theory of Regionalism" in R. Baldwin et al (eds.) *Expanding Membership of European Union*. Cambridge: CUP.
- \_\_\_\_\_. 1997. "The Causes of Regionalism" *The World Economy*, Vol. 20, 247-281.
- Bergsten, C. Fred. 1996. "Competitive Liberalization and Global Free Trade: A Vision for the Early 21st Century." Asia Pacific Working Paper Series No. 96-15. Washingt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 \_\_\_\_\_. 2000. "Towards a tripartite world." *The Economist*, Jul 13th.
- Bhagwati, Jagdish. 1992. "Regionalism versus Multilateralism", *The World Economy*, Vol. 15, No. 5, 535-555.
- \_\_\_\_\_. 1993. "Regionalism and Multilateralism: An Overview." In Melo and Pangariya (eds.) *New Dimensions in Regional Integr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1995. "U.S. Trade Policy: The Infatuation with Free Trade Areas", In J. Bhagwati and A. Krueger (eds.) *The Dangerous Drift to Preferential Trade Agreements*. Washington, DC: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for Public Policy Research.
- \_\_\_\_\_. 2008. *Termites in the Trading System: How Preferential Agreements Undermine Free Trad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Dent, Christopher M. 2013. "Paths ahead for East Asia and Asia-Pacific regionalism." *International Affairs*, Vol. 89, No. 4. 963-985.
- Frankel, J. 1997. *Regional Trading Blocks in the World Economic System*. Washington D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 Ganesan, Narayanan. 2011. "Regionalism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Narayanan Ganesan and Collin Durkop (eds.) *East Asia Regionalism*. Papers of the Workshop on "Differing Perspectives on East Asian Regionalism" organized by the Konrad-Adenauer-Stiftung and the Hiroshima Peace Institute in Hiroshima 2010.
- Ghosh, Jayati. 2004. "Regionalism, Foreign Investment and Control: The New Rules of the Game outside the WTO", paper presented at a seminar on the Economics of New Imperialism. Jawaharlal Nehru University.
- Krugman, P. 1991. "Is Bilateralism Bad?" in E. Helpman and A. Razin (eds.) *International Trade and Trade Policy*. Mass, Cambridge: MIT Press.
- \_\_\_\_\_. 1993. "Regionalism versus Multilateralism: Analytical Notes" in J. de

- Melo and A. Panagariya (eds.) *New Dimensions in Regional Integration*. Cambridge: CUP.
- Lipsey, Richard G. 1957. "The theory of customs union: trade diversion and welfare." *Economica*, Vol. 24, No. 93. 40-46.
- Mansfield, Edward D. and Helen V. Milner. 1999. "The New Wave of Regionalism" *International Organization*, No. 53. Vol. 3, 589-627.
- Panagariya, A. 1996. "The 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 Good for Latin America?" *The World Economy*, Vol. 19, No. 5, 485-515.
- Stubbs, Richard. 2002. "ASEAN PLUS THREE Emerging East Asian Regionalism?" *Asian Survey*, Vol. 42, No. 1. 440-455.
- Sum, Ngai-Ling. 1996. "The NICs and competing strategies of East Asian regionalism." Andrew Gamble and Anthony Payne (eds.) *Regionalism and World Order*, 207-246. London: Macmillan Press.
- Urata, Shujiro. 2006. "A Shift from Market-Driven to Intitution-Driven Regionalization", Working Paper No. 303. Stanford Center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 Viner, Jacob. 1950. *The Customs Union Issue*. New York: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 통계자료

- Barbieri, Katherine and Omar Keshk. 2012. Correlates of War Project Trade Data Set Codebook, Version 3.0. <http://correlatesofwar.org/>
- UNCTAD 웹사이트 <http://unctad.org/en/pages/Statistics.aspx/>
- WTO 웹사이트 <http://rtais.wto.org/UI/PublicShowRTAIDCard.aspx?rtaid=147/>

## 필자 소개

유웅조 You, Woong-jo

국회입법조사처(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입법조사관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학사, 미국 뉴욕주립대학교 정치학 박사

논저 "한국민주주의의 위기와 전망(공저)", "한국 민주주의 도전과 극복(공저)", "한국의  
외교안보패즐(공저)", "US Foreign Aid, Democracy and Human Rights.", "한국 공적  
개발원조정책의 성격에 대한 실증분석", "미국 자유민주주의 확산정책에 대한 실증분석"

이메일 [wyoukr@gmail.com](mailto:wyoukr@gmail.com)